

Antonetta L. Bruno Giovanni Volpe
Somin Chung

Il coreano per gli italiani

Corso intermedio-avanzato

Volume 3

Trascrizioni degli esercizi audio

EDITORE ULRICO HOEPLI MILANO

INDICE

Unità 1	1	Unità 13	12
Unità 2	2	Unità 14	12
Unità 3	2	Unità 15	13
Unità 4	3	Unità 16	14
Unità 5	4	Unità 17	15
Unità 6	5	Unità 18	16
Unità 7	6	Unità 19	16
Unità 8	7	Unità 20	17
Unità 9	8	Unità 21	18
Unità 10	9	Unità 22	18
Unità 11	10	Unità 23	19
Unità 12	11	Unità 24	20

Trascrizioni degli esercizi audio

Unità 1

Esercizio 12 (Mp3 #1)

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세요.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누르세요. 찾으려고 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시면 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sercizio 13 (Mp3 #2)

고객: 안녕하세요? 환전하고 싶은데요.

은행원: 얼마나 바꾸실 거예요?

고객: 백만 원을 유로로 바꿔 주세요.

은행원: 여기에 이름하고 여권 번호를 써 주세요.

고객: 이것만 쓰면 되나요?

은행원: 네, 여기에다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수수료를 빼면 팔백팔십 유로입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고객: 사백 유로는 백 유로짜리로 주시고 사백 유로는 오십 유로짜리로, 나머지는 알아서 주세요.

은행원: 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Esercizio 14 (Mp3 #3)

은행원(여자): 54번 손님.

고객(남자): 네, 저,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요.

은행원: 신용 카드 말씀입니까?

고객: 아니요, 체크 카드요. 저도 체크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은행원: 그럼요, 혹시 대학교에 다니시나요?

고객: 네, 나라대학교에 다니는데요.

은행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크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식당이나 극장에서 할인이 되고 환전 수수료도 할인해 줍니다.

고객: 그래요? 오늘 카드를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원: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그럼, 지금 만들어 주세요.

은행원: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그리고 대학교 등록증을 주시겠습니까?

Esercizio 15 (Mp3 #4)

은행원(남자): 151번 손님.

고객(여자): 안녕하세요?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세 번 잘못 눌러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은행원: 네, 비밀번호를 바꾸셔야겠네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주시겠어요?

고객: 여기요. 통장은 없어도 되나요?

은행원: 네. (잠시 후) 케이 체크 카드가 맞으시나요?

고객: 네.

은행원: 먼저 신청서를 써 주시겠어요?

고객: 네. (잠시 후) 여기요.

은행원: 새로운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눌러 주시겠습니까?

은행원: 고객님의 이 번호는 생일 날짜와 같아서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 번호를 눌러 주시겠어요?

고객: 네.

은행원: 다시 한 번 더 눌러 주세요.

고객: 네.
 은행원: 다 되었습니다.
 고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Unità 2

Esercizio 9 (Mp3 #5)

저는 성격이 1차분하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2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제 행동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일을 서둘러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일에도 3신경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4배려를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sercizio 10 (Mp3 #6)

남자: 내 동생은 왜 그렇게 소심한지 모르겠어.

여자: 혹시 A형 아니야?

남자: A형은 맞지만 A형이라서 소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네 가지 혈액형만으로 복잡한 성격을 나눌 수 있겠어?

여자: 내가 볼 때는 혈액형마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 보면 A형은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 많고, B형은 사고적이고 O형은 털털하고 AB형은 차분한 편이지 않아? 인터넷에 보면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성격에 관한 글도 많고.

남자: 글썄…….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A형이지만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B형이지만 낮은 사람에겐 말도 잘 못 건네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O형이지만 무뎉뎉한 사람도 있으니까.

Esercizio 11 (Mp3 #7)

(여자)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진 특징 네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력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반가워합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욱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왜’, ‘무엇을’을 사용한 질문을 합니다. 넷째,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을 잘 외웁니다. 예전에 한 번 만났던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죠? 우리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고 즐거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라면, 여러분께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sercizio 12 (Mp3 #8)

(남자) 안녕하세요? 바른아이병원 의사 김승언입니다.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이런 성격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우기 쉬운 아기를 볼까요? 이런 아기들은 잘 먹고 잘 자고 낮은 사람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만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소심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의 감정을 잘 읽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둘째는 예민한 아기입니다. 이런 아기들은 잘 먹거나 잘 자지도 않고 자주 우는 편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짜증을 많이 내거나 쉽게 화를 내면 아기는 더욱 불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도움이 특히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끝으로 느린 아기입니다. 만약 부모가 급하게 무엇을 빨리하라고 하면 아이가 더 소극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쉬운 일부터 조금씩 하게 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Unità 3

Esercizio 10 (Mp3 #9)

남자: 내일이 여자 친구 생일인데 선물로 꽃다발을 주는 건 어떨까?

여자: 글썄, 나는 꽃다발은 별로인데. 그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 기분 좋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선물 아닐까?



남자: 여자들은 꽃다발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구나.

여자: 사람마다 다르겠지. 여자 친구의 취향을 잘 생각해 봐.

Esercizio 11 (Mp3 #10)

여자: 수민이가 이번 주말에 집들이한데 뭘 선물할지 고민이야.

남자: 응? 집들이?

여자: 그래, 저번에 수민이가 짐 정리 다 했다고 이번 주 일요일에 오라고 했잖아.

남자: 아, 맞다. 요즘 왜 이렇게 잘 깜빡하나 몰라. 잠깐만... 이번 주말에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아, 다행히 토요일이네. 나도 집들이에 갈 수 있겠다. 리사도 간대?

여자: 아니, 리사는 못 간다고 해. 리사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하잖아.

남자: 아, 그렇지. 우리 말고 또 누가 가?

여자: 니콜라도 갈 거래. 수민이 기숙사 방 친구였잖아. 그래서 둘이 친한 모양이야.

남자: 잘 됐다. 이번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겠네. 집들이 선물로 와인은 언제? 니콜라도 온다니까 두 병은 사 가야겠는데.

여자: 와인도 괜찮기는 한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

Esercizio 12 (Mp3 #11)

여자: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지요?

남자: 그럼요, 그런데 왜요?

여자: 한국 친구한테서 초대를 받았는데 한국 사람 집에 처음 가는 거라서 조금 걱정이 돼요.

남자: 걱정하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자: 그런데 양말을 신지 않아도 돼요? 요즘 더워서 양말을 안 신고 다녀서요.

남자: 요즘 너무 더우니까 양말을 신지 않고 손님 집에 들어가도 크게 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자: 선물을 좀 사 가는 게 좋겠지요?

남자: 프란체스카 씨는 아직 학생이니까 뭘 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자: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요. 과일 바구니나 꽃다발을 사갈까요?

남자: 예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기념품 같은 거 없어요?

여자: 아, 열쇠고리를 좀 사 왔는데 그걸 가져가면 어떨까요?

남자: 그거 괜찮네요.

Esercizio 13 (Mp3 #12)

(여자)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는 방문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식사에 초대 받은 것이 아니면, 식사 시간이나 아침 일찍, 밤늦게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약속 시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꽃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외투를 벗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외투를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이곳저곳 구경하지 않고, 집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또한 집 안 분위기와 대접에 대해서 칭찬과 인사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을 끝내고 나올 때도 “고맙습니다”, “폐를 끼쳤습니다”처럼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현관에 서서 인사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Unità 4

Esercizio 9 (Mp3 #13)

1. 운동량을 늘려도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2. 위에 부담이 될까 봐 매운 음식을 되도록 안 먹어요.
3. 운동을 시작한 김에 식사량도 조절해서 건강 관리를 하려고요.
4. 평소에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야지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Esercizio 10 (Mp3 #14)

여자1: 머리 염색했네요. 잘 어울려요.

여자2: 고마워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고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해요.

여자1: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상하기 쉽다고 하던데요? 기사에서 읽었는데 파마나 염색으로 머리를 바꾸고 싶으면 3~4개월 지나서 하래요.

여자2: 안 그래도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해서 그런지 요즘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기도 하고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여자1: 저는 머리카락을 말릴 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게 안 좋대서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데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신문에서 읽었는데 검은 콩이 머리카락에 좋대요.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잘 자란대요.

여자2: 찬 바람과 검은콩, 알겠어요. 이따 장 보러 가는 김에 콩을 좀 사야겠네요.

Esercizio 11 (Mp3 #15)

사회자: 한국 라디오 5분 건강 생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비만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사랑 병원, 김소아 선생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안녕하세요?

사회자: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은데요, 요즘 어린이 중에 비만이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 비만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자: 아이가 태어난 후 24개월까지는 키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먹는 양이나 종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4개월이 지나면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요즘 어린이들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 어린이가 많아지는 게 아닌지요? 어린이 비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 네, 패스트푸드나 즉석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30분만 해도 충분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한테 건강해지려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비만이라고 혼내는 건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옆에서 응원해 주고 도와주시면 아이도 즐겁게 살을 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자: 김소아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Esercizio 12 (Mp3 #16)

이제 컴퓨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을 오래 하면 목, 어깨, 손목이 아프기 쉽습니다. 또 모니터를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주 손목과 목, 어깨를 가볍게 풀어 주면 좋습니다. 모니터와 눈은 45c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또한,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야 할 때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좋아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려우니까 컴퓨터를 되도록 오래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Unità 5

Esercizio 10 (Mp3 #17)

1. 시원한 날씨와 잘 어울릴 만한 공연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영화를 찾다가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3. 지난달에 했던 공연도 매진됐다고 하던데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4. 이제는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 콘서트를 보러 온다고 하네요.

Esercizio 11 (Mp3 #18)

남자: 이번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여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고 해서 가족들과 극장에 갔어요.

남자: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많던데 뭐 보셨어요?

여자: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영화를 찾다가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애니메이션이라서 유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울고 나왔잖아요.

남자: 무슨 내용인데요?

여자: 가수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어떤 가수의 기타를 만졌다가 겪는 이야기예요. 줄거리도 감동적이었고 음악과 영상도 훌륭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을 생각해서 꿈을 포기하는 남자 주인공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꿈을 포기하게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였어요. 영화를 보고 어떤 꿈이 더 의미가 있는 꿈인지 생각해 봤어요.

남자: 애니메이션치고 어른들도 생각할 만한 내용이네요. 전 애니메이션은 잘 보지 않는 편인데 미나 씨 이야기를 들으니깐 보고 싶어지네요.

여자: 네, 불만하니 윤호 씨도 시간 되면 봐 보세요.

Esercizio 12 (Mp3 #19)

사회자(여자): 사랑 TV 오늘의 문화 산책입니다. 오늘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소와 목소리를 가진 천의 얼굴, 뮤지컬 배우 김현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김현진입니다.

사회자: 작년부터 뮤지컬 ‘빨래’에서 남자 주인공을 하고 계신데요, 이 뮤지컬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자: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여자와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객은 저희 뮤지컬을 보시고 이렇게 평을 쓰셨더라고요. “먼지 같은 어제와 오늘을 사랑과 꿈으로 빨래하자.”라고요.

사회자: 공연이 매우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지난달에 했던 공연도 매진됐다고 하던데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남자: 네, 공연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65만 명의 관객에게서 저희 뮤지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회자: 이 뮤지컬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남자: 글썽요. 저희 뮤지컬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가족도 없고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관객에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또 편안한 음악인데요. 누구라도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빨래 음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아, 많은 관객이 사랑할 만하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남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빨래>를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행복 한 사람입니다. 아직 느껴 보지 못한 2시간 30분의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특별 감사 행사로 11월까지 평일 공연을 예매하시는 관객께는 10,000원을 할인해 드리니 많이 보러 오세요!

사회자: 저도 사는 게 힘들 때, 제 마음을 빨래하고 싶을 때, 빨래를 찾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남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sercizio 13 (Mp3 #20)

(여자) 안녕하세요? 감동 라디오, ‘나는 이 공연에 간다’ 이수민입니다. 코끝에 닿는 서늘한 공기에 가을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원한 날씨와 잘 어울릴 만한 공연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과 숫자들’의 서울 공연 소식입니다. 이들의 ‘음악을 읽는 콘서트’는 문학 작품으로 만든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야기는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문학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두 번째 추천 공연은 매월 1일 부산에서 열리는 이야기 콘서트 ‘어떤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 콘서트를 보러 온다고 하네요. 이번 10월 공연에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명한 가수 여러 명이 참여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 공연 주제와 어울리는 관객들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 준다고 합니다.

10월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귀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해 줄 음악을 들으러 공연장에 가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Unità 6

Esercizio 11 (Mp3 #21)

1. 호랑이는 문 앞에서 엄마인 척 말했어요.
2. 동생이 그만 문을 열어 주고 말았답니다.
3. 치마 아래로 살랑살랑 움직이는 꼬리가 보였어요.
4. 첫 번째 숲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입맛을 쫄쫄 다시며 나타났어요.

Esercizio 12 (Mp3 #22)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무서운 호랑이와 사이좋은 오빠와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혼자 딸과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다른 동네

에 떡을 팔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첫 번째 숲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입맛을 쭉뺌 다시며 나타났지 뭐예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주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떡을 하나 줬어요. 호랑이는 떡을 먹고는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어요. 두 번째 숲길을 지나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떡을 또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숲길을 지나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데 아주머니에게 떡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결국 호랑이는 아주머니를 잡아먹고 나서 아주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호랑이는 문 앞에서 엄마인 척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엄마가 오랫동안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맞으면 손을 보여 달라고 했어요. 호랑이가 손을 문에 들이댔어요.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호랑이는 “아이고, 추운데 일하느라 그렇지. 추운데 어서 문 열어라!” 여동생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치마 아래로 살랑살랑 움직이는 꼬리가 보이지 뭐예요. 오빠는 깜짝 놀랐지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오빠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동생과 함께 밖으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집 뒤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호랑이는 동생과 오빠를 한참 기다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을 찾았어요. 호랑이가 물었어요. “얘들아,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말했어요. 호랑이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기름을 발라 봤지만,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옷다가 그만 나무 위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말하고 말았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호랑이도 나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오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Unità 7

Esercizio 11 (Mp3 #23)

1. 나머지는 일정대로입니다.
2. 저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내 집처럼 잘 알거든요.
3.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거든 1층에 있는 안내소로 가시면 됩니다.

Esercizio 12 (Mp3 #24)

여자: 역사의 도시,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경주 도시 관광버스는 여러분을 경주 곳곳에 있는 유명한 유적지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일정 변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굴암은 6월까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관람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도착 장소인 석굴암에는 멈추지 않고, 첫 번째 정류장인 불국사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정류장인 안압지로 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정대로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버스를 예약하실 때 받으셨던 안내 지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Esercizio 13 (Mp3 #25)

남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도보 여행을 함께 할 황도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서울의 한옥 마을로 안내할 것입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요, 오늘 오전에는 한옥 마을로 가는 길에 유적지에 먼저 들르고 한옥 마을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한옥 마을 뒤로 보이는 멋진 풍경과 함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2시 정도에는 한옥 마을 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서예 체험 교실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지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헤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자세한 일정은 지금 나눠 드리는 지도를 봐 주십시오. 혹시 서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20년 넘게 서울에서 살면서 일해 왔기 때문에 서울의 구석구석을 내 집처럼 잘 알거든요, 하하. 자, 그럼 출발하실까요?

Esercizio 14 (Mp3 #26)

여자: 이것으로 한글 박물관 견학을 마칩니다. 이번 견학이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출구로 나가시면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한글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옷, 엽서, 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 금액은 모두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고 있으니 많은 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한글 작품 만들기 체험 교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글을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거든 1층에 있는 안내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nità 8

Esercizio 11 (Mp3 #27)

1.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올려 주셨어야지요.
2. 바로 예약 확인 이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크기는 이만하고 허리에 댈 수 있는 작은 가방이에요.
4. 일련번호는 노트북 배터리 있는 쪽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Esercizio 12 (Mp3 #28)

- 여자: 안녕하세요? 여기 회원인데요, 회원 카드를 분실했거든요.
- 남자: 아, 그러세요?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컴퓨터에서 회원 정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 여자: 010-764-7831이에요.
- 남자: 고미숙 회원님 맞으십니까?
- 여자: 네, 맞아요.
- 남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여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남자: 예. 운동하시고 나서 여기에 다시 들러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새 카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 여자: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운동하고 나서 가방을 화장실에 놓고 나왔는데,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 남자: 그러세요? 어떻게 생겼죠?
- 여자: 크기는 이만하고 허리에 댈 수 있는 작은 가방이에요. 색깔은 파란색이고 앞쪽에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 남자: 잠시만요. 이거 맞으세요?
- 여자: 네, 제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Esercizio 13 (Mp3 #29)

- 여자: 안녕하세요? 한스타 컴퓨터의 김가현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남자: 안녕하세요?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을 열려고 하면 너무 느리거든요.
- 여자: 알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의 일련번호를 불러 주시겠어요?
- 남자: 일련번호요? 잠시만요. (잠시 후) 죄송한데요, 그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여자: 일련번호는 노트북 배터리 있는 쪽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 아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지 알아봐야 해서요.
- 남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Esercizio 14 (Mp3 #30)

- 남: 차오름 고객님의니까?
- 여: 네, 맞는데요.
- 남: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여행사의 김민수입니다. 제가 일본 도쿄로 가시는 고객님의 가족 여행 예약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님의께서 예약하시려는 하주쿠 호텔의 침실 2개짜리 방이 매진되었습니다.
- 여: 분명 어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는 예약 가능하다고 나왔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올려 주셨어야지요.
- 남: 저희도 방금 일본 호텔에서 연락을 받아서 미리 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다른 호텔로 바꿔 드릴까요?
- 여: 어떤 호텔이죠?
- 남: 고객님의께서 가시는 때가 연휴라서 빈방이 많이 없습니다. 하주쿠 호텔과 가격이 비슷하고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이 남은 호텔은 바라키야 호텔 하나뿐입니다.
- 여: 거기도 하주쿠 호텔처럼 수영장이 있고, 지하철역에서 가깝나요?
- 남: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 호텔 규모가 작은 편이라 수영장은 없습니다.
- 여: 그렇군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럼 그 호텔이라도 예약해 주세요.
- 남: 네, 새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약하셨던 호텔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추가 금액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 감사합니다.

남: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예약 확인 이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Unità 9

Esercizio 11 (Mp3 #31)

1. 노트북을 가져온다는 것이 깜박하고 안 가져왔어요.
2. 음악을 그만두려다가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다시 힘냈어요.
3.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걸요?
4. 봉사 활동을 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봉사 활동을 하나 싶더라고요.

Esercizio 12 (Mp3 #32)

누나(여): 오늘도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했어?

동생(남): 응. 다음 주부터 시험이거든.

누나: 그러니까 좀 평소에 하지.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불안하잖아.

동생: 맞아. 평소에 공부한다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

누나: 뭐, 나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자주 했었지. 그런데 벼락치기를 하면 시험이 끝난 후에 공부한 내용도 잊어버리게 되더라. 지나고 보니 평소에 꾸준히 공부했다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동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누나: 그런데 이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나 봐. 회사에 취직해서도 벼락치기로 일할 때가 많거든. 해야 하는 업무도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돼. 지난번에는 업무 발표를 급하게 준비해서 망쳤어. 그러니까 너는 벼락치기 하는 습관을 고쳐 봐.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생활 습관을 지니는 게 좋은 거 같아.

Esercizio 13 (Mp3 #33)

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의 박미경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가수의 길을 선택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우 씨?

남자: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자: 하은우 씨의 노래가 요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자신이 만든 노래가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 하셨나요?

남자: 아니요. 이렇게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자: 예상 밖의 인기를 얻으면서 ‘좀 더 일찍 시작할걸’하는 후회가 들지는 않으세요?

남자: 글썄요. 좀 더 일찍 시작했다라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께서 노래 가사에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지요.

여자: 그렇군요. 요즘 하은우 씨가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남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막막하실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분들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sercizio 14 (Mp3 #34)

남자: 한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신 KTV 드라마 ‘열대야’의 작가 이수연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한국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 첫 작품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작가의 길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바꾸게 되었는지, 또 힘든 결정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 글썄요. 누구에게나 진로를 바꾸고 싶은 계기는 직장 생활 내내 찾아올걸요. 그런데 직장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라서 할 만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획도 없이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그만두지 않았을걸요.

남자: 그래도 드라마 작가로 성공하셨으니 결국 꿈을 이루신 것 아닌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드라마 작가를 꿈

꾼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작가를 꿈꾸거나 작가로 진로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후배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자: 음...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뿐 아니라 서류를 관리하는 일도요. 또 경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nità 10

Esercizio 10 (Mp3 #35)

1.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2. 지구 온난화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환경 문제는 심각해졌다.
4. 아무리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더라도 쓰레기를 계속 많이 버린다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Esercizio 11 (Mp3 #36)

남자: 차를 좀 드시겠어요?

여자: 네, 감사합니다. 아, 종이컵 말고 이 컵에 주실래요? 여기요.

남자: 컵을 항상 가지고 다니나 봐요?

여자: 네.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남자: 좋네요. 참, 하나 써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적게 일할수록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대요.

여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적게 일할수록 에너지를 적게 쓸 테니까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전거를 타거나 고기를 덜 먹거나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 등만 환경 보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자: 우리 생활 모두가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 그러게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책의 문제인 만큼 환경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Esercizio 12 (Mp3 #37)

(여자) 우리가 어디에서나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 때문에 지구가 아픈 것을 아시나요? 한 기사에 따르면, 지구에 3조 400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수는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때보다 46% 적은 수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언제 얼마나 종이를 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에서 복사할 때 종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고, 종이컵 사용이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하얀 종이는 좋은 종이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실에서 종이의 50%가 사용한 그 날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쓴 종이만 모아서 재활용 종이를 만든다면 나무를 많이 없애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재활용 종이를 만들 때는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또 밝은 흰색이 아니니까 눈에도 좋습니다. 재활용 종이를 많이 쓰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sercizio 13 (Mp3 #38)

안녕하세요? 한국 라디오 건강 정보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환경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스페놀 A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캔과 종이컵 안에도 사용되며, 영수증이나 은행의 번호표로 사용되는 종이에 쓰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인데, 이것을 계속 만지게 되면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넣는 용기에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비닐봉지와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졌을 때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영수증이나 번호표 종이 손에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Unità 11

Esercizio 11 (Mp3 #39)

1.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2. 제 발을 밟아 놓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3. 그 사람은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이라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
4. 아기를 낳자마자 엄마가 가슴에 안으면서 이름을 불러 주면 좋대요.

Esercizio 12 (Mp3 #40)

열두 시와 유리 구두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신데렐라는 유명한 동화 속 공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전 세계에 수백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 형태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는 여자 주인공을 돕습니다. 둘째,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 주인공이 심술쟁이 새어머니와 새로운 가족을 만난 후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셋째, 부자의 파티에 가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게 됩니다. 또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물건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주인공은 그 물건의 주인을 찾고, 여자 주인공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데렐라 이야기 속 왕자와 같은 남자를 만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해 달라고 바라는 여자의 심리를 뜻합니다.

Esercizio 13 (Mp3 #41)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 주는 아저씨 정하나이에요. 오늘은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주머니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부채 두 개가 들어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더워서 빨간 부채를 부쳤더니 코가 길어지지 뭐예요? 그리고 파란 부채를 부쳤더니 코가 작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이 부채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잣집에 찾아가 낮잠을 자는 부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빨간 부채를 부쳤어요. 깜짝 놀란 부자 할아버지는 의사를 불러 약을 먹었지만 길어진 코는 작아지지 않았지요. 부자 할아버지는 코를 낮게 해 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코를 고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부채 할아버지는 부자를 찾아가서 차를 한 잔 주고 그걸 마시면 금방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자에게 부채를 부쳐 줬어요. 코가 작아진 부자는 약속대로 돈을 많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어요. 매일 먹고 놀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코가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빨간 부채를 계속 부쳤어요. 코가 계속 길어져서 구름을 지나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에 사는 선녀들은 할아버지 코를 보고서 할아버지를 혼내 주려고 하늘나라 기둥에 묶었습니다. 코가 묶인 줄도 모르고 코가 너무 길어져서 아프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부쳤어요. 그런데 파란 부채를 부치니까 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그때 선녀들은 할아버지를 풀어 줬어요. 자,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sercizio 14 (Mp3 #42)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아시나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깜짝 놀란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보고 화내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 계셨군요!"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내가 왜 네 형님이냐?" 나무꾼은 말했어요. "형님이 호랑이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산으로 돌려보낸 후로 어머니께서는 항상 형님을 걱정하며 슬퍼하십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나무꾼을 집으로 보내 줬어요. 그 뒤로 호랑이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자기가 잡은 동물을 집 앞에 놓고 갔답니다. 3년 후에 호랑이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운 겨울에 며칠 동안 산을 돌아다니며 병을 낫게 해 줄 풀을 구해 왔지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후로 호랑이의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나무꾼은 호랑이를 찾아 산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꼬리에 하얀 끈을 묶은 아기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 호랑이들이 나무꾼에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호랑이가 어디에 갔냐는 나무꾼의 질문에 아기 호랑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집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매일 밥도 안 드시고 우시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Unità 12

Esercizio 9 (Mp3 #43)

1. 번역가로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현실을 고려한 목표 직업과 꿈의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3. 전화를 받으려고 세수를 하다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채로 나왔다.
4. 이번 겨울은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은 대신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

Esercizio 10 (Mp3 #44)

기자(여):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신문 기자 박보람입니다. 김길수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문 독자들이 거의 학생들이라 진로에 관심이 많은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지요?

남자: (웃으며) 만족하지 않았다면 제가 20년 동안 의사를 하지 않았겠죠?

기자: 어떤 점에 특히 만족하시나요?

남자: 글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기를 매일 보며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병원에만 오면 거의 울지만, 우는 것도 항상 보면 싫지 않더라고요. 특히 가끔 살짝 웃어 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보람 있습니다.

기자: 아기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의사로 지내시면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남자: 무엇보다도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부족한 점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의사라는 직업은 보람이 큰 만큼 환자에 대한 책임감도 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sercizio 11 (Mp3 #45)

앵커: 인기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미래연구소가 오 년 후에 인기를 끌 직업을 알아봤는데 애완동물 미용사가 1위였습니다. 김철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는 서울의 한 애완동물 미용 학원입니다. 이곳에서 일 년 정도 배우면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점점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 학원 학생: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애완동물 미용사를 하고자 해요.

기자: 컴퓨터를 사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현실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직업도 있습니다. 바로 가상 현실 전문가인데, 컴퓨터 기술이 발전한 결과 최근에 새로 생긴 직업 중 하나입니다.

가상현실 전문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를 사용해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여 드릴 수 있으므로 저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역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인기 직업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C 뉴스 김철수였습니다.

Esercizio 12 (Mp3 #46)

여자: 오늘은 밝은내일연구소의 일자리 채용 전문가를 모시고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자: 면접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요?

남자: 가끔 면접 질문과는 관련 없이 자기가 준비한 말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후회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거나 특별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대답을 들은 사람은 “과연 단 한 번도 후회되는 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자기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면접관의 어려운 질문에도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Unità 13

Esercizi 6-8 (Mp3 #4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 라디오 <우리말 여행>입니다. 속담과 관용 표현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밭이 넓다’와 같은 관용 표현에는 특별한 교훈이 없지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라는 말이죠.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속담은 교훈은커녕 보면 볼수록 이상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와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속담은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담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풍자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뻐해 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남이 잘되는 것은 기분 나빠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슬프고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만 있다면 잘못된 세상일 겁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질투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필요한 거죠. 이런 속담을 사용할 때는 속담 뒤에 ‘-더니’를 붙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다더니 네가 그 모양이구나!”라고 나무라듯 이야기해야 속담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죠.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는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기에 남도 갖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한심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무라야 하는 장면이지요. 이럴 때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는 사람이 있다더니 네가 그 꼴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알려 주고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죠.

우리는 속담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속담을 볼 때 우리 조상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이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79> 편집

Unità 14

Esercizi 5-7 (Mp3 #48)

여1: 오늘의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독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에는 형과 동생이 나옵니다. 형은 변호사로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반면에 동생은 베팅이처럼 일은 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개미와 베팅이’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책에서는 형운이 동생에게 오지요. 동생이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되어 아내가 죽게 되는데, 그 아내의 유산이 매우 많았던 겁니다. 형이 추구한 삶을 성실함으로 보고, 동생이 추구한 것을 현재의 즐거움과 욕망으로 본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후회 없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독서 토론 주제는 “형과 동생 중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는가?”입니다.

남: 저는 동생이 형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생활하게 되면 보통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지만, 오히려 부자가 되었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2: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은 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형한테서 돈을 얻어 냅니다. 형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 하지만 형처럼 매일 일만 하느라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마흔일곱의 나이에 예순 살처럼 보이는 외모를 지닐 만큼 힘들게 산다면 그 역시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 묘사된 형의 ‘어두운 표정’은 마음속 불행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2: 동생이 형 속을 썩이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이 처음에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덕분에 형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지만, 동생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버린 아내와 아이들, 잠깐 만난 여자들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봅니다.



남: 소설을 보면 “동생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동생을 싫어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생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2: 동생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그가 영화배우처럼 화려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생한테서 돈이 사라진다면 그때도 여전히 동생의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동생이 맺은 관계들은 곧 사라질 거품 같은 관계일 뿐입니다.

남: 동생은 재미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꼭 돈이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만 해도 동생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행운에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웃으며 즐거워한 이유도 동생의 이런 매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2: 동생이 지금은 부자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낭비하며 산다면 얼마 가지 않아 재산을 다 써 버리고 다시 가난해질 겁니다. 동생에 비해 형은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으니까 노후를 편안히 즐길 수 있겠죠. 성실한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친구로 평가 받을 테고요. 그러니 형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Unità 15

Esercizi 5-6 (Mp3 #49)

〈행복과 복〉

한국의 옛날 자료들을 뒤져 보면 ‘불행’이라는 말은 눈에 쉽게 띄지만, ‘행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행복’이라는 용어는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번역된 단어일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인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한 삶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행복을 향한 바람은 매우 강한 편이었어요. 예컨대, 우리는 새해에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건네죠. 편지의 마지막에도 “댁 내에 큰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문에는 큰 글씨로 ‘복’을 써서 붙였지요. 한국의 옛날이야기들 또한 대부분 행복하게 끝납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하늘에서 복을 얻어 잘살고, 무작정 길을 떠난 바보가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등 주인공이 꿈꾸었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 제일 가까운 말을 유교 경전에서 찾으면 ‘복’일 것입니다. ‘복’의 사전적 의미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좋은 운’입니다. ‘복’을 이루는 구체적인 조건은 오복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다섯 가지 복은 오래 살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복과 영어의 happiness가 비슷한 단어라고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Happy의 어원이 운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고대에는 행복을 신이 주는 행운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졌지요. 서양 사람들은 행복을 스스로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반면 한국인은 하늘에서 운을 내려 주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뒤에 바라는 대로 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복을 많이 혹은 적게 타고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팔자를 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양에서는 복을 스스로의 의지로 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정해진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복은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분수나 절제 그리고 긍정적 의식 구조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개인의 행복을 찾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양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잡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복을 받아야 하는 한국인은 그 복을 많이 바랄수록 그것이 분수에 넘치는 것이 되어 그 욕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안분지족’이나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은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면서 행복을 이루자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가운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불교적 세계관과 ‘적게 바라고 충분함을 알면 나쁜 일이 없다’라는 노자의 가르침 등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현실 순응적인 긍정적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은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불행을 적극적으로 이겨 내려고 하기보다 불행을 팔자 문제라고 체념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지금보다 더 불행한 경우를 상상해 보고 “그만하기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보려고 했지요. 이러한 ‘복’에 대한 생각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기여한 점은 삶과 현실에 대한 긍정에 바탕을 둔 끈질긴 생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경조, 정수현(2013). 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pp. 100-107

Unità 16

Esercizi 5-6 (Mp3 #50)

기자(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추상미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지요.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 겪은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완전히 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의 새 작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아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감독(여): 하루는 집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북한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남한에서 차로 가면 3~4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있는 게 가능한 일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분단을 주제로 영화 제작을 계획하면서 한국의 역사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죠.

기자(남): 전쟁 고아들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일부는 외국으로 입양되어 갔던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천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다시 폴란드로 갔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감독(여): 이 이야기는 폴란드의 한 기사를 통해 알려졌고 폴란드에서 소설로도 나왔어요. 폴란드에 도착한 전쟁 고아들은 2년 또는 4년 동안 폴란드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고 몸이 좋아졌지요. 몇 년 후 북한의 노동력 부족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가야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간 전쟁 고아들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돌아간 후에도 꾸준히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북한에서 폴란드로 보낸 아이들이지만, 한 기록에 의하면 1500명 중 절반은 북한, 절반은 남한의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폴란드에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지금 생존해 계신 80~90대 나이의 폴란드 선생님들의 증언을 들으며,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화였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서의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남): 그렇군요. 탈북자 배우로서 옥순 역으로 뽑힌 송이와 폴란드로 함께 가셨던데요?

감독(여):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귀덕이고 옥순이는 귀덕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폴란드에 있는 귀덕이의 무덤을 찾아가고 영화에서 귀덕이를 설명해 주는 존재라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남): 폴란드로 보내진 아이들과 그들을 돌봐 준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바탕이라면, 닫힌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송이의 이야기도 영화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독(여): 처음에는 송이의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폴란드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달라졌죠. 송이는 남한에서 살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Auschwitz Birkenau)에서 유대인들의 상처를 보고 나서 본인도 숨겨 뒀던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밤마다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었고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기자(남): 당시 북한으로 간 아이들은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졌다면 폴란드 선생님들에게 북한에서 온 송이는 그들을 회상시켜주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송이의 변화 역시 상처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일어났을 텐데, 크게 어떤 변화가 보였고, 이것을 어떻게 영화에 담고 싶으셨나요?

감독(여): 송이가 평소에 정말 밝은 아이인데, 폴란드 선생님들이 한 번 안아 주니 막 울더라고요. 폴란드 선생님들은 북한으로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지난 65년 동안 늘 북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을 걱정하셨대요. 그래서 송이가 탈북했다고 하니 그때 헤어진 아이들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폴란드 선생님들이 당시 만났던 북한 아이들에 대한 증언을 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니 송이가 무척 기뻐했어요. 남한에 와서는 억양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늘 무시당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시간을 보냈다면, 선생님들을 만남으로써 북한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기자(남): 저는 영화를 보고 송이와의 대화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관객이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요. 왜 푸른 눈의 폴란드 선생님들은 멀리에서 온 검은 눈의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었던 걸까요? 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추억할 정도로 말이지요.

감독(여): 음... 저는 그 관계를 특별한 유대라고 봐요. 폴란드와 한국은 분단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기차역에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

절의 일부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도 깊어지지 않을까요?

기자(남):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 관객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감독(여):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상처를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썼던 폴란드 선생님들의 실화를 살펴봄으로써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가진 우리들의 상처는 어떤지 되돌아보고 싶었죠.

기자(남): 네, 잘 알겠습니다. 추 감독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42335&memberNo=25041664&vType=VERTICAL>
<https://bundo63.blog.me/221391688512> 재구성

Unità 17

Esercizi 6-7 (Mp3 #51)

여자: 안녕하세요? 그림 읽어주는 여자 박홍란입니다. 오늘은 조선 시대 17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인 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도는 서민의 일상적인 모습을 간단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화가로 유명한데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중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씨름이라는 작품입니다.

계절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부채를 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단오 때가 아닐까요? 옛날에는 단오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부채를 선물했거든요. 다가오는 더위를 식혀 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였지요. 또 단오는 농사를 짓는 시기에 있었는데요, 단오에 열리는 씨름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남자가 단오 때 씨름 경기에 참가해서 우승하려고 했지요.

그림 요소들의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래쪽에 많고 위에 적었다면 씨름판의 열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볍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듯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게 그리려면 화가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아야 하겠죠? 그렇게 높은 데서 바라보았다면, 씨름하는 사람은 작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씨름하는 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날씬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린 것이지요. 즉, 구경꾼의 시선을 빌려 옴으로써 우리는 직접 씨름 구경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모두 22명의 인물이 있는데 인물마다 행동과 얼굴 표정이 달라서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갓을 쓴 양반들과 일반 서민들이 다 같이 씨름 경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김홍도는 배경을 생각하고 구경꾼들을 테두리에 동그랗게 그려서 가운데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림 왼쪽에 있는 전통 간식을 파는 사람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 두 켤레가 있는데요, 신발 앞쪽을 그림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운데로 몰렸지만 사람 한 명과 신발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 화면이 너무 가운데로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잘 보세요. 한 켤레는 가죽 신발이고, 한 켤레는 짚신입니다. 즉 씨름하는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름하는 사람을 보시면 등을 보이는 사람은 팔에 힘줄까지 생겨 가며 상대방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넘어가려는 사람은 질 것을 예상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서민과 양반 중 누가 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2초 후) 두 사람 중에 지고 있는 사람은 양반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구경하는 사람 중에 왼쪽 위를 보시면 갓을 쓴 양반이 보이지요? 경기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양반의 옷차림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갓을 쓰고 부채를 든 양반은 다리가 저린 듯 한쪽 무릎을 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 오른쪽의 남자는 무릎을 꼭 붙인 채로 불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한 자세와 비교해 볼 때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은 다음 경기의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요. 한쪽에 벗어 둔 신발이 다음으로 경기할 선수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없죠? 여기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구경하는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다면, 그것은 이 작품이 옛날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단오에도 여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자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거나 그네를 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조선 시대에 일반 서민과 양반이 함께 씨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다음 작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Unità 18

Esercizi 5-6 (Mp3 #52)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의사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이 단어들을 합성하거나 줄여 만든 신조어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대화 맥락을 통해 생소한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 보는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인터넷 신조어로 인한 문제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오늘은 신조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신조어들은 줄임말과 달리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라 그 어원을 짐작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친아’, ‘딸바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을 줄인 말로, 공부면 공부, 성격이면 성격, 모든 점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데.”라는 말은 엄마들의 잔소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지요. 실제 ‘엄친아’는 존재하지 않지만 ‘엄친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많다고 할 정도로 20~30대의 스트레스 요인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경쟁에 지나치게 빠진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딸바보’는 자신의 딸을 특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딸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헌신적인 아버지가 늘어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아들을 선호했던 예전의 사회 모습과 매우 대조되는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원이 비교적 분명한 신조어들도 있습니다. ‘흙수저’와 ‘소확행’이 대표적인데요. 흙수저는 부잣집 출신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에서 유래한 신조어입니다. 흙수저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근 부모 재산에 따라 그 자녀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주장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부모 도움 없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난을 물려받는 사회가 되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를 볼까요? 이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한 소설가가 자신의 책에서 사용한 단어인데요, 출판된 지 삼십 년이나 지난 책에서 나온 단어가 최근에 널리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위해 소소해 보이는 것들을 미루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 지금의 작은 행복을 포기하게 된 것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소확행’은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게 하는 사회적 강요에 대해 성찰을 하게 합니다. 또, 이 말은 20~30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현재의 행복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는 젊은 세대의 심리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Unità 19

Esercizi 6-7 (Mp3 #53)

요즘 여러분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예요? 아마 공부하기를 즐거워하는 어린이는 얼마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로요. 책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몇 백 년 전 옛날에 살았던 아이들에게는 책과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옛날 아이들에게 공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요즘은 어느 집에 가나 책꽂이가 있을 만큼 책을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림을 보면 책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 합격해야만 신분이 상승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대요. 하지만 아이들 방에 책을 가득 꽂아 주고 싶어도 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돈이 많은 양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첫번째 그림처럼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 그림은 왕이나 양반들만 좋아했었는데 조선 시대 후기에는 일반 서민들도 이런 그림을 사다가 자녀들 방에다 놓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는 했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자식들만 보면 공부하라고 하나 봐요.

양반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되었지만 대부분 일반 서민의 자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서당이라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편이었어요. 서당은 기초적인 한문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자, 그럼 두번째 그림 김홍도의 <서당>에 나오는 아이들을 볼까요?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선생님이 있고 그 앞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네요. 학생들을 보면 머리를 길게 땀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갓을 쓴 사람도 있지요? 갓을 썼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린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공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서당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뜻이죠. 저기 모



여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잘 보세요. 나이가 모두 달라 보여요. 일곱 살 먹은 아이부터 아홉 살, 열한 살, 열일곱 살 먹은 형들도 있는 것 같지요?

어,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아마도 숙제를 해 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선생님 가까이 앉은 친구는 입가에 손을 대고 조용히 첫 구절을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앞에 불러 나간 아이는 입을 꼭 다물고 있네요. 혼나는 한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아이가 우는 걸 보니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 보이죠? 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숙제할 틈이 없었나 봐요. 농사를 짓느라 바쁜 시기에는 아이들도 일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기가 지나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한테 공부할 시간을 주려고 했어요. 자, 여기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아빠랑 엄마는 방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은 자리라는 물건을 만드는 일인데 농사일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이 일은 아이들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나요? “너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책이나 보라! 서당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어서 열심히 공부해!”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책을 펼쳐 든 아이는 부모님이 일을 시키지 않자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차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아이가 큰 소리로 책을 읽자 부모님은 마음이 흐뭇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처럼 평생 이런 일하면서 살면 안 돼. 과거에 합격해야만 양반이 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단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출세나 과거 합격을 위해서만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그림 정보.

그림 1: 자리짜기, 김홍도,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 문방도 병풍/ 19-20세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 서당, 김홍도,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Unità 20

Esercizi 5-6 (Mp3 #54)

여자: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집 안의 불을 켜고 끌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다 알아서 불을 꺼 주는 집으로 이사 왔거든.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해서 참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장 나니깐 너무 답답해. 고치는 사람이 올 때까지 불도 못 끄고.

남자: 그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전문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이겠지.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왔어. 너희 집은 아마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할 걸. 그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지. 요즘 세상은 이런 기술을 만들어 내는 지식과 정보가 힘이 되는 정보화 사회니까.

여자: 정보화 사회라서 그렇다고? 난 좀 다른 생각인데. 정보화라는 건 그냥 모든 일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남자: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은 정보화 사회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야. 왜냐하면 인류는 벌써 2500년 전부터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 왔고, 인터넷 이전에도 책과 신문에서 정보를 얻고 전화나 편지를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해 왔잖아.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화 사회를 설명할 수 없어.

여자: 나도 앨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정보화 사회를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 조금 달라진 면이 없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잖아? 인류가 겪은 농업 혁명이나 산업 혁명을 생각해 봐. 그때는 세상이 눈에 띄게 완전히 달라졌잖아. 농업 혁명 때는 동물을 잡거나 먹을 것을 찾아서 얻는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사회 규모가 확 커져서 정치랑 경제가 생겨났고, 산업 혁명 때는 기계랑 공장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남자: 눈에 보이는 뚜렷한 사건은 없지만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 앞서 두 번의 물결보다 훨씬 힘이 세다고 말해.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본이나 노동 말고 지식과 정보가 더 필요하게 되었어. 그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이 결합해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이래.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게 해주고 사회를 움직이는 시대라는 거야. 정치나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게 된 사회가 되었다는 거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편할지언정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니까 고장 나면 답답한 것처럼 말이야.

Unità 21

Esercizi 5-6 (Mp3 #55)

남: 김 박사, 미국에서 인간 복제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윤리를 배우고도 그런 비윤리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여: 인간 복제를 비윤리적이라 보시는 것은 선생님의 편견입니다. 인간 복제는 윤리적으로 볼 때도 매우 올바른 일입니다.

남: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나요?

여: 인간 복제 연구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복제된 배아를 통해 얻은 줄기 세포는 치매로 인해 파괴된 뇌세포를 대체하는 일이나 파괴된 심장 근육을 원래로 돌아가게 하는 일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 잠깐, 김 박사 말대로 배아 복제가 수많은 환자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치죠. 하지만 인간 배아도 넓게 본다면 인간이지 않나요? 물론 이 문제도 논란이 많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낙태를 인정하는 나라도 많은데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건 지나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배아 복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결코 배아를 치료에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요.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 분명히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할 것이 틀림없어요.

여: 맞습니다. 저의 목표는 인간 복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 역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유전자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전자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를 바랄 테니 그에게 인간 복제가 좋은 일입니다. 많은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겠지만, 대리모도 어쨌든 스스로 복제에 참여합니다.

남: 복제 기술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런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요? 자신의 인생이 이미 조작된 것이니...

여: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복제 기술이 없었다면 어차피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태어났다는 사실에 더 감사할 것입니다. 더구나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같을 뿐 똑같은 인간은 결코 아닙니다.

남: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포 제공자, 대리모, 태어날 사람, 이 세 사람이 모두 만족할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 복제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몇몇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또한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크지 않나요?

여: 앞으로 한국 사회를 위협할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아닙니까?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등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복제는 관련된 세 명의 사람들에게 좋을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생명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외면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나무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로그스교양연구회(2006). 교과서 속에 숨어 있는 논술 2. 살림출판사. 80-83쪽 편집

Unità 22

Esercizi 6-7 (Mp3 #56)

저는 오늘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맡은 밝은미래연구소 연구원 김영미입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 세대를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노인보다 청년 세대에게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었죠. 과거보다 한국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훨씬 나아졌으며, 굶을 걱정 없이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더 고통 받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묻고 이를 증명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청년 정책이 시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청년 문제는 시대적 특수성을 가진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과거보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노동 시장의 변화와 최근 산업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되었습니다. 또한, 달라진 노동 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장기 실업과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지요.

게다가 현재의 청년들은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앞으로 3~4년간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방식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노동 시장에서 청년



들은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과 관계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더불어 빈곤 또는 여성이라는 특성이 결합하였을 때, 그 문제는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 집단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바라보고, 집단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무시한 채 모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시기는 누구나 지나는 시기이죠. 청년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는 대신 소득, 가족 구성원의 상태,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정책이 삶의 전반을 아우르면서도 대상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년 문제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에 원인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Unità 23

Esercizi 8-9 (Mp3 #57)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여): 안녕하세요? 요즘 계층까지 물려받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좌절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최진보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보(남):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아도 부자의 62% 이상이 부모 역시 부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최진보: 오늘 주제가 청취자들에게 절망감을 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를 조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40 억 원 정도 됩니다. 이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약 3명 중 2명이 자수성가했지만, 한국은 반대로 3명 중 2명이 상속을 받은 경우였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국제적인 경제 연구소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를 조사했는데요. 이 돈은 6조 1,400 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4명 중 3명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보다는 2.6배, 일본보다는 거의 4배 높은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소득 하위 10%이거나 소득 상위 10%라면 자녀들도 그 계층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회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말씀하신 세 가지 자료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부자가 가진 재산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의 비중이 커지고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최진보: 요즘에는 가진 재산으로 버는 소득의 증가율이 일해서 버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 500대 기업의 대졸 정규직 직원 임금이 1년에 평균 3,85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1년에 4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올해 기준으로 4만 8,000명입니다. 즉, 개인이 노력해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물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 부채를 물려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진보: 약 10년 전에는 소득이 하위 10%인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가 2배 정도 많았는데, 올해는 8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의 경우 부채까지 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일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돈보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결국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억울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테지만 이것이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최진보: 그렇습니다. 전통 사회를 신분제 사회라고 하고 현대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때,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든지 경제를 활발하게 만든다든지 등을 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부모처럼 잘살 수 있다면, 굳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회자: 의미 있는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물려받을 경제적 자원에만 집중하는 사회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최진보: 맞습니다.

사회자: 불평등을 없애고 계층 이동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바랄 수 없더라도 기회라도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야지 기회의 평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막상 복지를 강화하자고 하면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한다면서 외면하거든요. 예컨대,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버는 소득이 높으므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하고 듭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썼으면 합니다.

사회자: 기회의 평등을 위한 조건조차도 없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Unità 24

Esercizio 6 (Mp3 #58)

앵커: 최근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어려움을 보고도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사람이 처한 위기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관심이나 외면을 두고 무작정 비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수원에 사는 박모 씨는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는 허모 씨와 허 씨의 여자 친구를 말리다가 생각지도 못한 고생을 했습니다. 허 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진 데다 허 씨의 여자 친구가 가슴을 만졌다면서 성추행으로 신고해 몇 달씩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검찰에까지 가게 된 박 씨의 억울함은 검사의 노력으로 허 씨가 자백한 이후에야 겨우 풀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사례를 ‘도와주고 누명 쓰기’라며 피해 사례를 모아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타인을 도왔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므로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민 인터뷰(경기도): 제 아이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항상 남의 일에 절대 나서지 말라고 교육해요.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범죄자로 오해 받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많으니까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 한편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법으로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타인에 대한 구조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터뷰(김태수 한국대학교 교수): 우리 법 체계가 독일의 영향을 받아 법과 도덕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법은 도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보다는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일정하게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체가 지키려는 최소한의 윤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한편,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한다면 도와준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 것을 강조해 왔던 중국도 지난해 10월부터 ‘호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려다 피해를 볼 경우 그 피해를 준 사람이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달아나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때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이서인 민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타인을 외면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효과도 적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착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기 위한 행위로 여겨지면서 사회가 더욱 삭막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법률 대신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이처럼 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에 따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뉴스 최강미였습니다.